

한국음악교육학회 2024 추계학술세미나 보고서 A Review of 2024 KMES Autumn Conference

양소영*
Sohyeong Yang

2024년 10월19일(토) 한국음악교육학회 추계학술세미나는 “철학, 음악교육철학”을 주제로 서울교육대학교 음악관 콘서트홀에서 개최되었다. 이 세미나는 음악교육 철학의 미래를 논의하며, AI시대를 맞아 음악교육의 새로운 방향성과 가능성을 탐구하는 자리가 되었다.

첫번째 주제발표는 ‘인간, 창작하는 존재’라는 주제로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의 김재인교수님께서 해주었다. 김교수님은 인간이 창작하는 존재로서 스스로를 이해하고 예술과 창작이 인간 정체성을 구성하는 핵심적 요소임을 주장하였다. 또한 AI 시대의 도래와 관련하여 창작의 본질적 의미를 재고하도록 이끌었다.

두 번째는 ‘AI시대, 미적 교육으로서 음악교육의 재음미’라는 주제로 서울대학교 김경화박사님이 발표해주었다. AI기술이 확산되는 가운데 음악교육의 역할과 방향성을 재조명하고 AI시대에서도 인간의 미적 경험과 자기 이해가 예술교육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학생들에게 미적 경험을 통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배양할 수 있는 음악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며, 미적 교육으로서 음악교육의 역할은 음악적 소리로 접근하는 교수·학습의 방향을 음악교육의 출발점으로 놓아야 한다는 것, 미적 교육으로서 음악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예술가로서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미적 교육으로서 음악교육은 음악적 경험의 공적 공유 과정에 매우 중요한 가치를 둔다는 점을 들고 있다.

세 번째는 백고은박사님이 ‘보편적 학습설계 원리에 기반한 음악과 교수·학습 전략 개발 및 적용’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었다. 연구자는 보편적 학습설계(UDL)의 원리를 음악교육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사례와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모든 학습자가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설계하며 음악교육의 실천적 적용 방안이 논의되었다. 마치

* 서울교육대학교 부교수

막으로 보편적 학습설계가 지니는 교육적 의의로 학습자 스스로 학습 양식과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서로 지지하는 환경과 교수자의 긍정적인 피드백이 중요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네 번째는 김민제박사님이 ‘학교 음악극 수업을 위한 교수·학습 자료 개발 및 활용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었다. 연구자는 학교 현장에서 음악극 수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교수·학습자료 개발 사례를 공유하고 학생들의 창의력과 협업 능력을 높이는 방법으로 음악극 수업의 활용 가능성을 강조했다.

심층토론은 주대창(광주교육대학교), 김성지(한라초등학교), 임혜숙(전주교육대학교), 박은경(경인교육대학교)박사님이 맡아 인간과 AI의 창작 가능성을 두고 철학적, 교육적 논의를 심화했다. 특히 인간이 가진 창작의 고유성과 AI의 역할에 대한 견해 차이를 중심으로 열띤 논의가 진행되었다. 또한 AI와 연계한 미래 음악교육의 방향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번 추계학술세미나는 AI시대를 맞아 음악교육의 철학적 기초를 재정립하고 미래 사회에서 음악교육의 역할을 탐구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AI 기술이 예술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있게 논의하며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위한 실천적 제안을 도출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앞으로 다가오는 다양한 시대 변화 속에서 창의적이고 철학적 관점을 확립할 수 있는 중요한 통찰과 실천적 도구를 제공했다는 데에 그 의의가 크다.